

## **Session 18 Leadership Lessons From The Wilderness (1 Chr. 11-12)** **제 18 장 광야의 리더십 학교 (대상 11-12 장)**

### **I. LEADERSHIP LESSONS**

#### 리더십 학교

- A. 1 Chronicles 11-12 provides much more information surrounding David's coronation as king over all Israel than found in 2 Samuel 5—we see how many men came to him and how he received them. The narrative in 1 Chronicles is not strictly chronological, but thematic, emphasizing David's calling, ability, and circumstances related to ruling a united Israel from Jerusalem.

대상 11-12 장은 삼하 5 장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왔고, 그가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볼 수 있다. 역대상의 스토리들은 정확하게 시간 순서대로 배치된 것이 아닌, 주제별로 배치되었으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연합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과 연관된 그의 부르심, 능력, 환경 등에 주제를 맞추고 있다.

- B. We know more about David's leadership by the people who responded to it. The Chronicler identified three groups—the chiefs among David's mighty men (11:10-25), the 30 mighty men (11:26-47), and those who had joined David earlier while he was in Ziklag (1 Chr. 12).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에게 보인 반응을 통해 다윗의 리더십을 더 잘 알 수 있다. 역대기 저자는 세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다윗의 용사들의 우두머리 (11:10-25), 군사 중 큰 용사 30 명 (11:26-47), 그리고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그에게 합류한 사람들 (대상 12 장).

- C. David's leadership won the confidence of the most influential leaders and the strongest warriors in both Israel and Judah. David had *confidence in God* after failures, he gave his men a *second chance* after their failures, he *refused to give up*, but rather embraced training the men even in context to adversarial circumstances (instead of drawing back and seeking his own comfort), he was *generous* to his former enemies in Israel (2 Sam. 2-4), insisted on those joining him being *equally yoked* in his vision (1 Chr. 12:18), and he *greatly valued* the noble, sacrificial efforts of his men (11:15-19)

다윗은 그의 리더십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의 많은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과 강력한 용사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다윗은 많은 실패들 뒤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되었고, 자신의 부하들이 실패할지라도 **두 번째 기회**를 주었으며,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나거나 자신의 안락을 찾기보다) 이 사람들을 훈련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전의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관대했으며** (삼하 2-4 장), 그들에게 자신의 비전에 **함께 명예를 지고** 함께 할 것을 요청했으며 (대상 12:18), 자신의 부하들의 고귀하고 희생적인 노력들을 **가치 있게 여겼다** (11:15-19).

### **II. DAVID WAS ANOINTED KING OVER ALL ISRAEL (1 CHR. 11:1-3)**

####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다 (대상 11:1-3)

- A. The account of David being anointed as king is from 2 Samuel 5:1-3. After the downfall of Saul's kingdom and house, David was recognized as the Lord's anointed (11:1-3, 10; 12:23, 31, 38).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은 삼하 5:1-3 절에서 볼 수 있다. 사울의 집과 왕국이 무너진 후, 다윗은 여호와와 기름 부으신 자로 인식되었다 (11:1-3, 10; 12:23, 31, 38)

<sup>1</sup>Then all Israel came together to David at Hebron, saying, “Indeed we are your bone and your flesh. <sup>2</sup>Also, in time past, even when Saul was king, you were the one who led Israel out and brought them in; and the LORD your God said to you, ‘You shall shepherd My people Israel, and be ruler over My people Israel.’” <sup>3</sup>Therefore all the elders of Israel came to the king at Hebron, and David made a covenant with them at Hebron before the LORD. (1 Chr. 11:1-3)

<sup>1</sup>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sup>2</sup>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라 <sup>3</sup>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대상 11:1-3)

- B. **We are your flesh and bones:** In this appeal they were asking for his forgiveness and seeking to make peace with him by saying that “we all came from Abraham.”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여기서 그들은 다윗의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고 말하며 그와 화평하기를 구하고 있다.

- C. David’s coronation was the firstfruits of Jacob’s prophecy over Judah (Gen 49:8-9). All of Israel’s sons bowed down to David when they crowned him as their king.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야곱의 유다에 대한 예언의 첫 열매였다 (창 49:8-9). 다윗이 왕이 될 때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엎드려 절했다.

<sup>8</sup>“Judah, you are he whom your brothers shall praise; your hand shall be on the neck of your enemies; your father’s children shall bow down before you. <sup>9</sup>Judah is a lion’s whelp; from the prey, my son, you have gone up. He bows down, he lies down as a lion... (Gen. 49:8-9)

<sup>8</sup>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sup>9</sup>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창 49:8-9)

- D. The Philistines under David’s hand was a type of Satan being under Jesus’ hand, while Israel bowing down and praising David was a type of the nations bowing down and praising Jesus as the Lion from the tribe of Judah.

다윗의 손 아래에 있던 블레셋인들은 예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사단의 모습과도 같으며,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를 송축했던 것은 온 열방이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과도 같다.

### III. THE CAPTURE OF JERUSALEM AND JOAB’S PROMOTION (1 CHR. 11:4-9)

예루살렘의 점령, 그리고 요압의 승진 (대상 11:4-9)

- A. The Chronicler emphasized David as being the man who finally drove out Israel’s long-standing enemies—the Jebusites—completing the task begun by Joshua almost 500 years earlier.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이었던 여부스 족을 몰아냄으로 500 년 전쯤에 여호수아가 시작한 일을 완성한 사람이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sup>4</sup>And David and all Israel went to Jerusalem...<sup>5</sup>David took the stronghold of Zion (that is, the City of David). <sup>6</sup>Now David said, “Whoever attacks the Jebusites first shall be chief and captain.” And Joab the son of Zeruiah went up first, and became chief. (1 Chr. 11:4-6)

<sup>4</sup>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 <sup>5</sup>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 성(다윗의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sup>6</sup>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대상 11:4-6)

- B. **Joab:** David sought for a man to take responsibility and initiative to lead the attack on this Jebusite city. Joab rose to the occasion and became the commander-in-chief of Israel’s army in place of Abner who had recently been murdered by him (2 Sam. 3:27; 8:16; 11:1).

**요압:** 다윗은 여부스 족의 도시를 공격함에 있어 책임을 지고 선봉에 설 자를 찾았다. 요압은 이 일에 일어나서 결국은 전에 살해당한 아브넬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삼하 3:27; 8:16; 11:1)

- C. **Went up first:** Joab climbed up the Jebusite water shaft that led to the underground water supply for the city. Water shafts provided walled cities situated on steep hills access to water supply below.

**먼저 올라갔으므로:** 요압은 여부스 족의 도시에 지하를 통해 물을 공급하는 물 길는 곳(수로)으로 올라갔다. 물 길는 곳, 수로는 가파른 언덕 위에 위치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에 아래쪽으로부터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 IV. DAVID’S MIGHTY MEN (1 CHR. 11:10-47)

##### 다윗의 용사들 (대상 11:10-47)

- A. The chiefs of David’s army strengthened David by their efforts. The point to see is that the Lord provided significant support for David by sending gifted and courageous leaders to help him.

다윗의 군대의 장군들은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다. 여기서 지켜보아야 할 것은 주님이 다윗에게 재능 있고 용맹스런 지도자들을 붙여주셔서 그를 크게 돕도록 하신 일이다.

<sup>10</sup>Now these were the heads of the mighty men whom David had [in Hebron], who strengthened themselves with him in his kingdom...to make him king,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1 Chr. 11:10)

<sup>10</sup>[헤브론에 있던]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대상 11:10)

- B. Eleazar stood his ground alongside David in a barley field after the army of Israel fled (12:11-14). David led the way, provoking courage in Eleazar.

엘르아살은 보리 밭에서 이스라엘이 달아난 후에도 다윗 옆을 지키고 있었다 (12:11-14). 다윗은 앞장 서서 나갔고, 이는 엘르아살에게 용기를 불어일으켰다.

<sup>13</sup>*He [Eleazar] was with David...there the Philistines were gathered for battle, and there was a piece of ground full of barley. So the people fled from the Philistines. <sup>14</sup>*But they stationed themselves in the middle of that field, defended it...the LORD brought about a great victory.*  
(1 Chr. 11:12-14)*

<sup>13</sup> 그가[엘르아살]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엔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sup>14</sup>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였더라 (대상 11:12-14)

- C. This episode in David's life gives us insight into how his men felt about him. We also see David's gratitude for their risk by refusing to drink the water that was obtained at the risk of their lives.

다윗의 삶에 있는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그의 부하들이 그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었을 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또한 다윗이 그들이 생명을 걸고 가져온 물을 마시지 않음으로, 그들이 위험을 무릅쓴 것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sup>16</sup>*David was then in the stronghold, and the garrison of the Philistines was then in Bethlehem. <sup>17</sup>And David said with longing, "Oh, that someone would give me a drink of water from the well of Bethlehem..." <sup>18</sup>*The three broke through the camp of the Philistines, drew water from the well ...and brought it to David. Nevertheless David would not drink it, but poured it out to the LORD. <sup>19</sup>And he said, "Far be it from me, O my God, that I should do this! Shall I drink the blood of these men who have put their lives in jeopardy?"...He would not drink it.* (1 Chr. 11:16-19)*

<sup>16</sup>그 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느니라 <sup>17</sup>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sup>18</sup>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sup>19</sup> 이르되 내 하나님이며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 (대상 11:16-19)

- D. Benaiah disarmed an Egyptian over 7 feet tall and killed him with his own spear (1 Chr. 11:22-23).

브나야는 7 피트(2m)가 넘는 이집트인의 창을 빼앗고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대상 11:22-23).

<sup>22</sup>*Benaiah...had gone down and killed a lion in the midst of a pit on a snowy day. <sup>23</sup>And he killed an Egyptian, a man of great height, five cubits tall. In the Egyptian's hand there was a spear like a weaver's beam; and he went down to him with a staff, wrested the spear out of the Egyptian's hand, and killed him with his own spear.* (1 Chr. 11:22-23)

<sup>22</sup> ...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 또 눈 을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sup>23</sup>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베를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대상 11:22-23)

**V. A GENERATION WITH PROPHETIC SIGNIFICANCE AND MUCH TRANSITION (1 CHR. 12)**

예언적으로 중요하며, 큰 변화를 겪은 세대 (대상 12 장)

- A. 1 Chronicles 12 tells the story of a time in Israel’s history between the reigns of Saul and David. Saul was anointed and chosen by God. He developed a culture around his leadership, with legal, economic, and educational systems. There is a transition period between the time David is anointed and when the culture of the kingdom changed.

대상 12 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울의 통치에서 다윗의 통치로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선택되었다. 그는 자신을 중심으로 법, 경제, 교육 시스템 등의 문화를 세워나갔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이 나라의 문화가 바뀌기까지는 과도기적인 기간이 있었다.

- B. The house of Saul continued in contention with the house of David for seven years after Saul died during which the kingdom of Saul continued to be fully operational. Systems can operate long after the anointing has lifted. The system continued, but the cloud of God’s glory had moved to a young man named David. Israel was in a generation that was facing great change.

사울의 집은 사울이 죽은 이후 7 년 동안에도 다윗의 집과 투쟁을 계속하며, 이 기간 동안 사울의 왕국은 지속적으로 건재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어져도 시스템은 오랫동안 작동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지속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다윗이라는 젊은이에게 옮겨져 갔다. 이스라엘의 세대는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 C. People had to decide whether to stay with the old order of things or to recognize that the anointing had shifted to David and his ways. Israel found herself in a time of great transition because all she had known until then had been the ways of Saul’s kingdom.

사람들은 이전 체계 안에 머물지, 아니면 기름 부음이 다윗과 그의 방법으로 옮겨진 것을 인정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알아온 모든 것들이 사울의 왕국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해야 했다.

- D. God was raising up a new order in His kingdom. David was a nobody, off in a field somewhere, with no reputation. At first it didn’t look like much, just a bunch of young people in debt and depressed, with a man and a harp in the cave of Adullam.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에 새로운 질서를 일으키고 계셨다. 다윗은 아무런 명성도, 이름도 없고, 들판 어디에선가 온 자였다. 처음에 다윗의 무리는 빚 지고, 우울한 이들이 아둘람 동굴에서 하프를 가진 이와 함께 모여 있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이들이었다.

- E. 1 Chronicles 12 makes special mention of some of the men who were with David in Ziklag in the wilderness years before all Israel made David king in Hebron (12:23). 1 Chronicles 12 is organized around three places—*Hebron* (11:10; 12:23), *Ziklag* (12:1, 20), and *the stronghold* (12:8). Many covenanted themselves to David to serve the vision that God gave David.

대상 12 장은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삼기 이전인 광야의 시즌에서 다윗과 함께 시글락에 있던 몇 명의 사람들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12:23). 대상 12 장은 세 장소의 스토리를 담고 있다. 헤브론 (11:10; 12:23), 시글락 (12:1, 20), 그리고 요새 (12:8).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비전을 섬기기 위해 다윗과 함께 언약했다.

<sup>1</sup>Now these were the men who came to David at Ziklag while he was still a fugitive from Saul... helpers in the war, <sup>2</sup>armed with bows, using both the right hand and the left in hurling stones and shooting arrows with the bow. They were of Benjamin, Saul's brethren. (1 Chr. 12:1-2)

<sup>1</sup>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sup>2</sup>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대상 12:1-2)

F. Men from both Benjamin and Judah joined David in the wilderness in the stronghold (12:16-17).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람들도 광야의 요새에서 다윗에게 합류했다 (12:16-17).

<sup>16</sup>Then some of the sons of Benjamin and Judah came to David at the stronghold. <sup>17</sup>And David went out to meet them, and answered and said to them, "If you have come peaceably to me to help me, my heart will be united with you; but if to betray me to my enemies, since there is no wrong in my hands, may the God of our fathers look and bring judgment." (1 Chr. 12:16-17)

<sup>16</sup>베냐민과 유다에서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sup>17</sup>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내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대상 12:16-17)

G. **May God look:** Previously David said "Let the Lord judge" between people, meaning to allow Him to orchestrate the circumstances to establish His will in the midst of a conflict. The Lord is a just arbitrator and will judge, or decide, the right answer for each party (24:12, 15; cf. Gen. 13:9; 16:5; 31:53; Num. 12:1-13; 16:4-5; 1 Sam. 24:12, 15; 26:9-11, 23-24; 2 Sam. 2:1; 15:25; 16:11-12; 1 Chr. 12:17; 19:13; Ps. 28:1; 31:5, 15; 35:1; 54:4; Jer. 11:20; Dan. 6:22; Rom. 4:20-21; 1 Pet. 2:23).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이전에 다윗은 사람들 간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사"라고 말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갈등 관계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그분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의미이다. 주님은 공정한 중재자가 되시며, 심판하시며, 결정하시며, 각각에게 올바른 답을 주실 것이다 (24:12, 15; 참고 창 13:9; 16:5; 31:53; 민 12:1-13; 16:4-5; 삼상 24:12, 15; 26:9-11, 23-24; 삼하 2:1; 15:25; 16:11-12; 대상 12:17; 19:13; 시 28:1; 31:5, 15; 35:1; 54:4; 렘 11:20; 단 6:22; 롬 4:20-21; 벧전 2:23).

H. Amasai's prophetic response and prayer was inspired by the Holy Spirit (12:18).

아마새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적으로 반응하며 기도했다 (12:18).

<sup>18</sup>Then the Spirit came upon Amasai, chief of the captains, and he said: "We are yours, O David; We are on your side, O son of Jesse! Peace, peace to you, And peace to your helpers! For your God helps you." So David received them, and made them captains of the troop. (1 Chr. 12:18)

<sup>18</sup>그 때에 성령이 삼십 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대상 12:18)

- I. Note a threefold grace resting on the body like that which rested on the sons of Issachar (12:32).

잇사갈의 자손들 위에 임했던 것처럼 3 가지 은혜가 몸 위에 임하는 것을 주목하라 (12:32).

<sup>32</sup>...*the sons of Issachar who had understanding of the times, to know what Israel ought to do, their chiefs were two hundred; and all their brethren [relatives] were at their command...*  
(1 Chr. 12:32)

<sup>32</sup>잇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이백 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 [친척들]를 통솔하는 자이며(대상 12:32)

- J. **Understanding of the times:** This means that they had prophetic insight into what God was doing in their generation. You make changes in your life because you sense God is up to something in this generation and do not want to miss out on it, but to be a part of it.

**시세를 알고:**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세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예언적으로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앎으로, 그리고 당신이 놓치기를 원치 않는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당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1. The tribe of Issachar had a prophetic awareness of the rumblings of God in their generation. It resonated in their hearts, and they were a people on spiritual pilgrimage. There was a holy discontent that rested upon them because they were unwilling to settle for anything less than the fullness of what God offered them.

잇사갈 자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세대를 흔들고 계신 것을 예언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는 그들의 마음에 울리고 있었으며, 그들은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들 위에는 거룩한 불만족이 임해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충만함에 미치지 못하는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2. Many are here because you have a prophetic sense that God is up to something. You made costly decisions because you sensed God is doing something and you do not want to miss out.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예언적으로 감지하고 있기에 여기에 와 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인지했고, 이 일을 놓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값 비싼 결정을 했다.

3. God is looking for people like the sons of Issachar in a prophetic generation. This generation will see the anointing of David in the earth. We are involved in a shifting of history.

하나님께서서는 예언적인 세대 안에 잇사갈 자손과 같은 백성들을 찾고 계신다. 이 세대는 이 땅에서 다윗의 기름 부으심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서 있다.

4. The plumb line of God is being stretched out to the families of the earth as God asks if they will align themselves with the Davidic anointing or not. What is coming forth is restoration of the tabernacle of David and the Davidic anointing because the One returning to Jerusalem is the Son of David. It will be essential to refuse to yield to a spirit of political correctness.

하나님의 다림줄은 이 땅의 가정들을 향해 내려져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윗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계신다. 이제는 다윗의 장막과 다윗의 기름 부으심이 회복될 것인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오실 이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상황에 맞춰서 정치적으로 자신을 화합하는 마음을 거절하는 일을 우리에게 필수적인 일이 될 것이다.

- K. *Knew what Israel ought to do:*** There is action and much hard work to do. They took action—they understood God’s strategies and implemented them. They *did* something, not just talked about it.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여기에는 많은 해야 할 어려운 일과 행동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략을 이해했으며, 이를 시행했다. 그들은 이에 대해 그저 말만 하기보다 **행동으로** 옮겼다.

1. We must not only prophesy the potential; we must contend for it in our cities. Some give up too easily when setbacks occur.

우리는 우리 도시가 가진 잠재력에 대해 그저 예언만 하기보다, 이것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향해 싸워나가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차질이 생길 때 너무 빨리 포기한다.

2. They find it easy to get “released” to move on to something else when things get tough. We must contend for the prophetic commission on our generation until it comes forth in the earthly realm. The Lamb is worthy of our investing our life fully in what He is doing.

그들은 일이 어려워질 때, 다른 일로 주제를 옮겨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 세대에 주어진 예언적인 임무에 대해 이것이 이 땅에 실제로 일어날 때까지 싸워나가야 한다. 어린 양께서는 그분이 행하고 계신 일에 대해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 L. *200 chiefs with their relatives:*** The men under them speaks of long-term relationships with others. This includes sustained unity. We must come into unity and not allow offenses to separate us.

**형제들을 통솔하는 200 명의 우두머리:** 그들이 누군가를 통솔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 긴 시간 동안 관계를 가져왔음을 말한다. 이는 연합이 오래 지속되어 왔음을 말한다. 우리는 함께 서로 연합하며, 공격들로 인해 우리가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We must accept being misunderstood and be willing to be overlooked. We gain much more ground working in unity with others. There were 200 chiefs with all their relatives under their command in unified action. It is a sign of God’s glory when families follow God together.

우리는 오해를 받거나 무시를 당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이를 넘어서야 한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연합해서 일할 때 더욱 강력해지게 된다. 여기에는 200 명의 우두머리들이 있었으며, 또 그들 아래에는 그들의 명령에 일치되어 따르는 그들의 친척들이 있었다. 가정과 집안들이 함께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의 표적이다.



2. The message to this generation is that we have to lay aside the petty things that divide us, come together in unity, and stop allowing offence to bring division in the body of Christ. We must invest in long-term Kingdom relationships.

이 세대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우리를 분열시키는 작은 일들을 옆으로 미뤄놔야 하며, 함께 연합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공격들이 분열을 가져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될 하나님 나라의 관계들에 투자해야 한다.